

2010년 세계한인의 날 기념 특별학술회의

세계 한민족 Diaspora와 모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



삼화

일시 : 2010년 10월 7일(목) 오후 1:30-5:00

장소: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층 교수회의실

주최: 호남정치학회, 전남대 정치연구회

주관: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단, KORiaspora연구회

후원: 한국연구재단, 김재균 국회의원실

식 순

<개회식> 오후 1:40-2:00

개회사 정용식(전남대 정치연구회장)
축사 윤성석(전남대 사회대 학장)
환영사 장우권(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단)

<학술회의> 2:00-5:00

제1회의(2:00-3:00)

사회자: 장운수(세계한상문화연구단)
발표자: 김재기(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세계한상네트워크와 세계한상대회:성과와 문제점
토론자: 이상걸(경실련경제살리기본부), 임택(참여자치21)
 김연욱(청와대 정무비서관실)

제2회의(3:00-4:00)

사회자: 장우권(전남대 문헌정보학과)
발표자: 김인덕(성균관대)
 일제시대 제일한인 민족운동과 제일유학생 운동
토론자: 하천호(입교대학), 김홍길(학생독립운동연구단)

제3회의(4:00-5:00)

사회자: 정용식(창조한국당)
발표자: 박찬용(김영진국회의원실),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자: 양하길(광주시 교육청), 오승용(전남대 5.18연구소)

세계한상네트워크와 세계한상대회: 성과와 문제점

김재기(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State linked-diaspora와 모국관계
- III. 세계한상네트워크 구축과 세계한상대회의 성과
- IV. 세계한상대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V. 결론

I. 서론

마누엘 카스텔스(Manuel Castells)는 21세기 국제사회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될 것이라 접근한다. 네트워크는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관계들을 상호 연결시켜주고 구성원들 간의 응집성을 갖게 해 준다. 네트워크는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코드(예로 민족이나 종교 또는 가치나 수행목표)를 공유하는 경우 무한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개방구조이다.

20세기의 한민족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이주당하거나, 반강제로 조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였고, 해방된 이후에도 많은 수의 한민족이 귀환하지 못하고 거주국의 소수민족이나 외국인으로서 디아스포라(diaspora)적 삶을 살아야 했다. 그리고 1945년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이 고착화되고 남과 북의 이념에 따라 대립과 갈등 속에서 한민족 상호간 교류 협력보다는 분산적 거주 행태를 보였다.

그런데 21세기 한민족은 세계화의 진척으로 국가간 인구유동이 자유롭고, 또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로 네트워크를 통해 한민족 사이의 동질성, 연대성, 응집성을 높이고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상호간에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세계에 분산되어 거주하는 한민족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것은, 탈냉전이후 세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분단과 분열, 대립과 갈등의 국내외 한민족 구성원들을 다양한 관계에 기초하여 연결하고 결합하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현실은 국가별, 업종별로는 정교하게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글로벌 수준의 통합 네트워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별, 영역별 네트워크를 글로벌 수준에서 정교하게 네트워크 할 경우 세계한민족네트워크가 완성이 되는데, 현실은 아주 느슨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다만 경제분야 한민족네트워크인 세계한상네트워크는 10여년의 역사 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한민족 경제네트워크를 추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계한상네트워크 사업 중 모국인 한국과 경제적으로 가장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가시적인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국가발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분야는 ‘세계한상대회’이다. 세계한상대회는 중국의 화상(華商), 인도의 인상(印商), 이스라엘의 유대인상(猶太人商)과 같이 세계 180여개 국가에 흩어져(diaspora)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상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자는 취지로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제비즈니스 행사이다(재외동포재단:2008). 이 대회는 한상 리딩CEO 포럼, 비즈니스 미팅, 기업전시회, 해외취업박람회, 한상특화 세미나, 멘토링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외동포기업인 상호 간 경제교류 네트워크 구성은 물론 한상 기업인과 국내 기업인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 10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8차 세계한상대회는 42개국 3,505명의 국내외 기업인들이 참가해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했으며, 세계한상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한국의 중소기업 상품전시회를 통해 7억 3천만달러 규모의 교역효과를 냈다(아시아경제:2010/10/30). 인천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1200여억원과 고용 유발 효과 600명 등의 성과를 얻었다. 제주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한상대회 교역액은 5천 9백만 달러였다.

이러한 경제효과 때문에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번 6월에 치러지는 광역자치단체 후보들의 선거 공약에도 나타났다. 세계한상대회를 두 번이나 개최한 부산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0회 세계한상대회를 또 다시 유치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회에 걸쳐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제주도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2009년에 처음으로 제주도 출신 국내외 상공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제1회 글로벌 제상대회’를 개최하여 투자유치와 지역 상품 수출에 활용하고 있다(연합뉴스:2009/11/28). 김범일 대구시장은 대구의 글로벌도시로 도약을 위해 2010년 제9차 세계한상대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자는 공약했고,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한, 강운태 후보는 광주에 ‘코리아 디아스포라관’ 건립을 통해 세계 한상과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라남도 지사로 출마한 박준영의 경우 2012년 해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위한 조직을 만들어 유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를 무대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글로벌 한상들과 국내 중소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한상대회’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으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세계한상과 같은 재외동포들의 중요성을 인식한 참여정부는 지난 2007년에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제정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인주간’을 설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용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도 글로벌 코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교안보 통일분야 정책 중 거의 유일하게 참여정부의 정책을 적극 계승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1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재외동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한상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통합인물 DB 구축을 추진할 계

획이다.¹⁾

한국에서 한상과 한상네트워크에 대한 학계의 접근은 10년이 안되었다. 개별학자들의 단편적인 연구에서 세계 한상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규모 연구로 진행은 국내외 60여명의 연구진이 참여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이 창단되면서 부터이다. 2003년부터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미국, 일본, 중국, 구소련 지역 등 지역별 한상들의 경제 환경, 경영 활동 등에 대한 실태를 국가별로 단행본²⁾으로 발간하였다. 2005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의 특징은 한상과 모국과의 경제적 효과를 산업 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상과 한국경제관계를 무역수지, 이전수지, 여행수지, 자본수지 등 국제수지표상의 경제변수들이 시계열로 분석해야 하나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상대회에 참가한 189명의 한상들의 투자 및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 2006년 (사)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에서 ‘해외한인동포 경제인 글로벌네트워크구축’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했는데,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각 지역 한상들의 특성과 한상네트워크의 비전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2006).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주관으로 매년 한상대회를 치른 뒤 발간하는 ‘세계한상대회결과보고서’가 발간되지만 참가자 현황과 프로그램을 정리해 놓은 수준이다.

이 논문은 세계한상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사례인 세계한상대회의 모국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난 8년 동안 지역을 순회하면 8회에 걸쳐 개최된 세계한상대회 평가를 통해 교역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21세기 한민족 발전의 블루오션으로서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세계한상대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State linked-diaspora와 모국관계

국가 간 인구유동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용어는 유대인 2000년 유랑의 역사를 의미하는 바와 같이 매우 오래 된(old word)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접근은 탈냉전 이후 세계화 현상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된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Gabriel Sheffer,

- 1)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재외동포 대상 정보제공 대표사이트인 코리아넷(Korean.net)에 연계, 통합 관리함으로써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묶는 온라인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한상경제정보센터의 설립을 통해 사이버 한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분야별·지역별 주요 재외동포 인물정보를 수집·DB화하여 우수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1차 보고자료(2009년 3월)
- 2)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과제로 지원을 받아 2005년에 1차년도 총서 11권, 2006년도에 2차년도 총서 11권을 발간하였다. 제1차년도 총서는 재미한인 경제환경, 중국 조선족 경제환경, 제일 코리안 경제환경, 고려인 인구이동과 경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집문당에서 출판하였다. 제2차 총서는 재미한인 기업의 경영활동, 제일 코리안 기업의 경영활동, 중국 조선족 기업의 경영활동, 고려인 기업 및 자영업 실태라는 이름으로 북코리아에서 출판하였다.

2006:8-10). Safran(1991), Wahlbeck(2002), Cohen(2008) 등의 디아스포라 연구자들은, 디아스포라 개념의 범주에 조국을 떠난 디아스포라들이 모국(homeland)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 여부와 함께 민족 구성원으로서 정체성(ethnic identity)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룬다. 디아스포라 현상을 정치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이스라엘의 정치학자 가브리엘 셰퍼는 ‘국가’의 역할에 관심을 갖는다. 그는 디아스포라의 유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모국 연계된 디아스포라(state-linked diaspora)와 모국 없는 디아스포라(stateless diaspora)가 그것이다. 그는 또한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의 정치경제적 활동에 주목하면서 모국 관계(homeland relation), 거주국가(host country)라는 삼각관계(triangular relationship)의 측면에서 설명한다(Gabriel Sheffer, 2006:73-74). 디아스포라 문제 접근에 있어서 모국의 존재 여부는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서 디아스포라 커뮤니티가 모국이나 거주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평화적이거나 또는 갈등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상호간에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될 경우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긴밀하게 유지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간에 단절적이고 비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될 경우 갈등과 대립의 정치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족이 자발적이거나 아니면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 정든 모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주하여 디아스포라(diaspora)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강제적으로 국가는 떠나는 디아스포라는 대부분 전쟁과 관계 깊다. 전쟁에 패한 국가의 국민은 보호해줄 국가가 없는 디아스포라(stateless-diaspora)로서 피난민이나 전쟁포로가 되어 강제적으로 조국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 건국전의 유대인과 현재 터키와 이라크 등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인, 일제강점기 한민족이 이에 해당된다. 전쟁이 아닌 국가간 평화로운 시기에 디아스포라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자발적인 경우가 많으며 주로 국가 간 자유로운 경제교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의 화교와 인도인, 유대인, 한민족 등이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민족이다. 이들은 떠나 온 모국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디아스포라(state linked-diaspora) 집단이다.

현재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가장 왕성한 국가는 미국이다. 국제사회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인 미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집단들은 민족단위로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모국과 정치경제적 연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다. 한때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을 연결했던 아르메니아인³⁾들은 미국으로 이주하여 ANCA나 아르메니아정치위원회를 통해 1915년 터키에 의해 자행된 제노사이드(genocide)⁴⁾를 이슈화하고 미국 의회의 지지를 요구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⁵⁾ 아랍계 미국인들은 아랍-이스라엘 분쟁, 2003년 이라크 침공, 9.11테러 이후 차별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

3) 구소련에서 독립한 아르메니아인들은 300만명 규모이며 모국과 연계된 디아스포라이다. 900만명 정도가 모국이 아닌 주로 터키, 러시아, 미국 등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태리인, 한민족, 유대인, 중국인, 인도인, 레바논인 등이 모국과 연계된 디아스포라이다.

4) 아르메니아는 1차 세계대전 당시인 1915-1917년 아나톨리아 반도 동부지역에서 오토만 제국에 의해 자국민 150만명이 살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5) 2010년 3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터키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백악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100년전 터키의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찬성 23, 반대 22라는 표차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 대만계 미국인들은 대만의 정치적 지위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불법이민자의 권리, 이중 언어 사용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유권자센터’ 등을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 중국내 탈북자 인권문제, 독도 표기 문제 등을 이슈로 미 의회를 대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김재기, 2008:5)

특히 모국과 정치경제적인 연계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민족은 미국의 유대인이다. 미국의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미국의 중동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매우 활발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유대인은 전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지배자이며, 초강대국인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정치경제 그리고 군사를 배후에서 움직이는 민족이 되었다. 중동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이나 원조 등 금융차관 지원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 모국인 이스라엘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고 있다. 결국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엔을 움직이는 것이며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국민소득이 스페인이나 한국과 비슷한데 미국으로부터 매년 30억 달러, 국민 1인당 500달러라는 파격적인 무상원조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유대인 단체들의 로비활동 결과이다.

미국의 유대인 단체 중 이스라엘과 가장 강력한 연계를 통해 이스라엘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이 1949년에 설립된 AIPAC(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이다. AIPAC의 주요 정치적 로비의 대상은 유대인이 많이 사는 지역의 의원들이고, 특히 이들 중 중동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수 의원들이 특별 관리 대상이다.

미국 내 최대 유대인 로비단체인 AIPAC이 언제나 최대 이슈로 삼고 있는 문제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안전과 미국-이스라엘 사이의 특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AIPAC의 의회, 백악관, 언론에 대한 로비도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중점을 둔다(Goldberg 1996:197-226). . 이러한 AIPAC의 정치력은 각계 유력인사 약 5만5천명으로 구성된 정회원과, 미국의 주요한 주 마다 구축된 정교한 지부의 활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듯이 AIPAC이 최소한 상원의원 45명과 하원의원 2백명의 고정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 르 피가로 지는 AIPAC을 ‘제2의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이라고 비유할 정도이다.⁶⁾

모국을 떠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민족 유대인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모국인 이스라엘과 정치경제적으로 강한 연계를 하고 있는 모습은 세계 180여개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한민족의 정치적 위상이 미국의 유대인과 같이 막강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국제사회 새로운 주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만명 규모의 미주에는 40여명의 선출직 정치인 있으며, 중국과 중앙아시아, 뉴질랜드⁷⁾, 캐나다⁸⁾ 등의 국가에서 고위 공직자에 오르는 관료와 정치적으로 성공한 한민족 정치

6) 실제 AIPAC은 워싱턴 파워로비 그룹 가운데 5위권 밖을 벗어나 본적이 없다. 워싱턴에서 이스라엘 대사관과 AIPAC 중 하나를 택하라면 이스라엘 정부는 주저하지 않고 AIPAC을 택할 것이라는 게 워싱턴 관계자들의 공동된 의견이다. 이스라엘 정책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데 이스라엘 대사관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있는 것이다.

7) 멜리사 리(42.한국명 이지연)은 뉴질랜드 야당인 국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돼 2008년 10월 선거에서 국회의